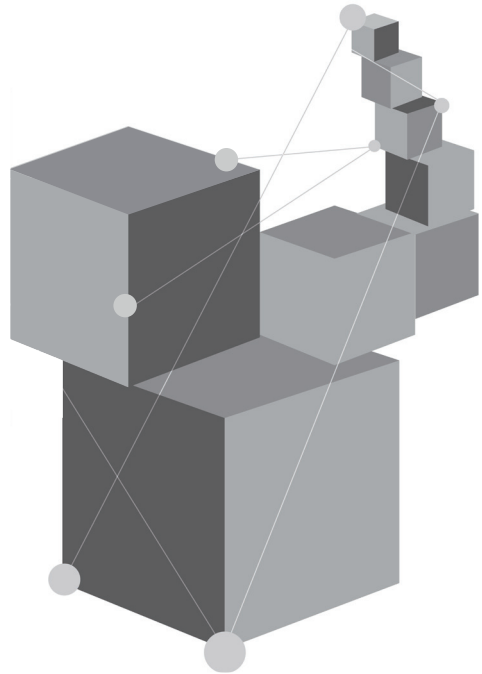


언론의 책임



▲ 2012-1093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문〉

일간스포츠 2012년 4월 21일자 22면 「종편 최고시청률 JTBC ‘아내의 자격’ 이 남긴 것/영화 같은 영상미 … 연출의 힘 빛났다», 5월 2일자 23면 「출범 5개월 JTBC 드라마의 성공요인 세가지/캐스팅 A급 스타 기용 … 보는 재미 더해/타깃층 30대 이상 연령대 시청자 공략/완성도 사전 제작 … 연기 몰입도 향상», 5월 3일자 22면 「JTBC 수목극 ‘러브 어게인’ 김지수/‘한국의 데미 무어’란 별명 별로…», 5월 8일자 20면 「JTBC 연예정보 프로그램 ‘연예특종’ 한 달만에 시청률 1% 돌파/중군기자·다큐 PD가 연예계 파헤친다», 5월 11일자 22면 「JTBC ‘해피엔딩’ 연준석/”1초 나와도 뿌듯 연기는 내 운명”», 5월 14일자 「JTBC ‘메이드 인 유’ 70만 달러 주인공 파스텔/표현력에 ‘깜짝’ 하모니에 ‘감동’」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일간스포츠는 며칠마다 한 번씩 JTBC프로그램 관련 기사를 연예면 머리기사로 대서특필해오고 있다. 이 기사들은 드라마 소개, 드라마 해설, 프로그램 시청률, 특정 프로그램 출연 연예인 등 다루는 소재와 주제도 다양한데 매번 내용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지면을 크게 장식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 채널 방송들 중 유독 JTBC 프로그램만을 시도 때도 없이 장점 위주, 칭찬 일변도로 확대 보도하는 이 기사들은 일반적으로 수궁할 수 있는 스포츠신문의 연예기사 수준과는 전혀 다르며 전형적인 홍보성 기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간스포츠는 관계사인 종합편성채널 방송 JTBC가 지난해 12월 개국한 후 지금까지 반년 가까이 줄곧 이같은 지면제작 행태를 보여 지난달 제453차 윤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유사한 행태를 보인 일부 다른 종편 자매 신문과 함께 주의 조치를 받았다.

당시 함께 주의 조치를 받았던 다른 종편 관계사 신문들은 관계사 종편 프

로그램을 일방적, 대대적으로 보도하던 지면제작 태도를 고쳐 지금은 일반적인 지면 제작으로 돌아갔으나 일간스포츠만은 유독 그 행태가 바뀌지 않고 있다.

이처럼 편향적이고도 일방적인 홍보성 지면 제작태도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며, 특정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해야하는 언론의 독립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결국 사회적 공기로써 언론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02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2012년 5월 4일자 11면 「'무데뽀 급제동 김여사'에 안전운전 습관 가르친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운전에 서툰 여성운전자들이 안전운전과 친환경·경제 운전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체험 기회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여성운전자 15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경제 운전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도전! 김여사, 급제동·급출발·급가속 탈출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김여사'는 운전에 서툰 여성운전자들을 지칭하는 인터넷 은어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가 주관하고 자동차시민연합, 포털사이트 다음이 후원하며, 경북 상주시에 있는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이뤄진다. 참가자들의 경비 등은 주관사에서 지원한다.

체험교육은 이론부터 실제 주행을 통한 평소의 운행 패턴 분석과 습관 교정 훈련을 포함하는 친환경운전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2.6km의 에코드라이빙 주행코스를 직접 주행하며 운전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올바른 운전자세, 자동차 제동 특성을 체험하는 위기극복 운전요령, 친환경 운전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여성운전자는 포털 다음 홈페이지(자동차/이벤트 코너)와 현대자동차 블루 멤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서울시가 인터넷 은어로 '김여사'라고 부르는, 즉 서툰 여성 운전자들이 제대로 운전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게 요지다. 그런데 기사 제목에 사용한 '무데뽀(無鐵砲)'라는 표현은 일본말로서 '신중함이나 대책이 없이 함부로 덤비는 사람이나 그러한 태도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대화 도중 흔히 비속어로 쓰고 있다. 더욱이 기사본문에는 이같은 표현이 없다.

대중매체가 이처럼 비속한 일본말로 기사 제목을 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창달과 언어순화, 정서에 바람직하지 못하며 신문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0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주문〉

일간스포츠 2012년 5월 24일자 24면 「'해피엔딩'〈JTBC 월·화 드라마〉 연인 소은씨, 극중선 냉랭 실재론 다정」 제목의 기사, 6월 11일자 23면 「역시 JTBC … 보도·예능도 굿~」 제목의 기사, 스포츠조선 6월 8일자 23면 「채널19 ⇨ '연예 in TV'가 이름 빼고 다 바꿨습니다./SATURDAY AM 11 : 00/[어느 맞벌이 부부의 토요일 오전 풍경] 여보~ 자기야! 그만 일어나!/'연예 in TV-the TREND' 할 시간이야./오늘은 소녀시대 윤아가 숨겨진 사생활을 공개한대 …」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일간스포츠는 자매회사인 JTBC의 프로그램 '해피엔딩'에 대해 한 면 전체를 할애해 크게 다루었다. 남녀주인공들의 팬들에 대한 인사, 주인공들의 성격 소개, 12컷에 이르는 여러 컷의 남녀주인공 사진물과 사진설명으로 면을 채웠다. 뚜렷한 주제도 없이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지나치게 크게 보도한 것으로, 전형적인 홍보성 기사의 모습이다.

또 11일자 23면 「역시 JTBC … 보도·예능도 굿~」 제목의 기사는 제목에서 보듯이 JTBC를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제목에서는 「보도·예능도 굿~」이라고 표현했으나 막상 기사에는 일반보도에 관한 언급은 없고 일부 연예 소식을 앞서 다뤘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또 익명의 『방송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 스포츠중계와 보도, 예능분야까지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는 내용은 객관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스포츠조선 6월 8일자 기사는 지면의 3분의 2를 할애해 연예정보 프로그램 '연예 in TV'를 새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다. 그 내용은

새로 개편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과도한 칭찬에서 세밀한 정보까지 담아 기사라기보다는 일방적 홍보다.

이처럼 자매회사의 프로그램 내용을 객관성 없이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지면 제작태도는 사실의 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며, 특정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해야하는 언론의 독립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결국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책임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4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2.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3.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4.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5.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6. 연합뉴스 발행인 박 정 찬
7.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8.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9. 한국일보 발행인 이 상 석

〈주문〉

경향신문 2012년 9월 1일자 1면 「‘간호사’ 꿈꾸던 명랑한 7살 ... “가족과 함께 함께 할 때가 가장 즐거워”」 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진, 9월 3일자 4면 「범행 이동 경로 ... CCTV는 없었다」 제목의 사진, 9월 3일자 5면 「범인, 얼굴 알아봐 목졸라 죽이려 했었다」 제목의 기사의 관련 사진, 東亞日報 9월 1일자 A3면 「“애들은 잘 있죠” 범행 직전 PC방서 아이엄마에게 물어봐」 제목의 기사

와 관련 그래픽, 9월 4일자 A14면 「나주 성폭행 여아 재수술 안할 듯」 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9월 1일자 A4면 「태풍 몰아치던 날 ... 강둑에 버려진 채 11시간 떨던 일곱 살 아이」 제목의 기사의 관련 그래픽, 매일경제 9월 4일자 A31면 「피해자 지원예산 1인당 고작 6만원/성범죄 피해아동 치료비에 또 운다」 제목의 기사, 문화일보 9월 4일자 3면 「'내 아이 일처럼'... '나주 피해兒' 돕기 밀물」 제목의 기사, 연합뉴스 9월 4일자 사회면(최종수정 08시 11분) 「“나주 성폭행 피해자 재수술 고려안해”」 제목의 기사, 한겨레 9월 4일자 3면 「3~6개월 배변주머니 의존해야 ... 급성 스트레스 시달려」 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9월 4일자 A32면 「나주 성폭행 피해 초등생 몸에 '잔인한 흔적」 제목의 기사, 한국일보 9월 4일자 6면 「피해아동 급성 스트레스 증상 심각/병원측 “감염 증세때 재수술해야”」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이유〉

1. 위 신문들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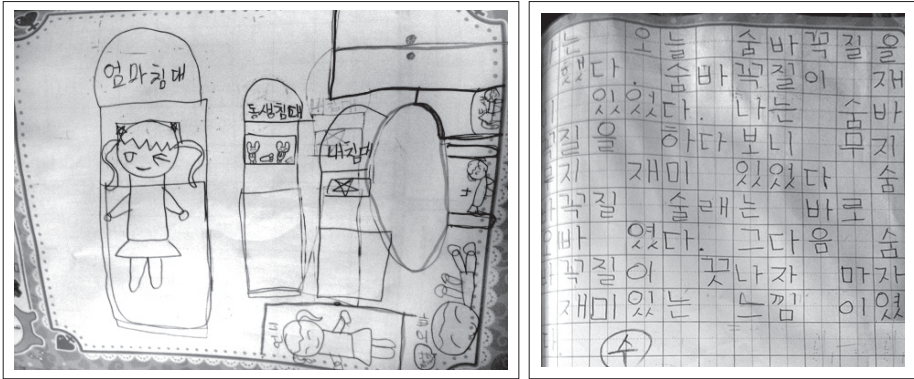
(경향신문)〈9월 1일자〉= 『전남 나주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7(7)은 책읽기와 그림일기 쓰기를 유난히 좋아하는 밝고 명랑한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다.

7(7)은 납치를 당하기 전날인 지난 29일 일기장에 “〈고백할 거야〉(동화책)를 읽었는데 정말 재미있었다. 동생과 놀아주고 친구들과 병원놀이도 했다. 오늘은 재미있고 알찬 하루였다”고 적었다. 7(7)이 다니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31일 “장래희망을 물었더니 ‘간호사가 꿈’이라고 적어 냈다”고 말했다.

7(7)은 올해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그림일기를 작성했다. 책을 읽고, 친구들과 놀고, 나들이하는 생활에 대해 늘 “정말 재미있었다”고 할 정도로 활발한 성격이었다.

그림일기를 보면 가족과 함께하는 화목한 시간을 가장 좋아했다. 가족, 특히 아빠와 함께 놀았던 기억을 자주 일기장에 옮겨놓았다. 지난 5월 26일에는 아빠와 동생, 본인이 활짝 웃고 있는 그림과 함께 “집에서 아빠랑 동생이랑 나랑 집에서 놀았다. 그런데 오늘은 아빠가 회사에 안 가서 놀 수 있었다. 그래

서 좋았다. 재미있었다”고 써놓았다.



〈경향신문 9월 1일자〉

6월 1일에는 ‘숨바꼭질’이라는 제목 아래 엄마·언니·오빠·동생이 방에서 7양과 함께 노는 장면을 그렸다.

6월 10일에도 “나는 오늘 파티를 갔다. 재미있다. 아빠는 거기에서 고기를 구웠고 엄마는 일을 했다. 그런데 엄청 재미있었다. 그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개울가에 갔다. 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개울가에 빠졌다. 그래서 손을 다쳤다”고 썼다.

7양 그림일기장에 오빠와 숨바꼭질한 하루(오른쪽)가 꼼꼼히 적혀 있다.

또 다른 날짜 미상의 그림일기에도 가족이 모두 모여 부침개를 먹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장면도 자주 등장했다. 6월 2일 일기에는 “오늘 지역 아동센터에서 생일잔치를 했다. 그런데 재미있었다. ○○이 생일이었다. 생일이 너무너무 재미있었다. 너무너무 엄청 재미있었고 좋고 재미있었다”고 쓰여 있다.

숙제와 공부방에서의 야간수업 때문에 물놀이를 못 가 아쉽다는 내용 등도 그림일기로 남겨놓았다.(후략)』

〈9월 3일자 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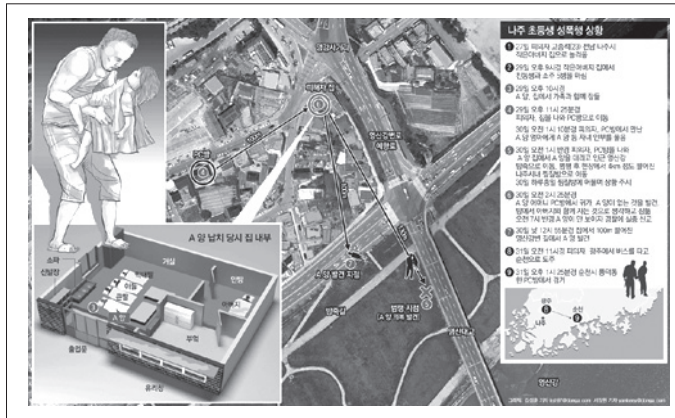
〈고씨가 잠을 자던 피해자 7양을 납치한 주택〉

〈9월 3일자 5면〉



현장검증에 몰려든 주민들 전남나주 납치·성폭행 사건의 현장검증이 이뤄진 1일 범인을 보기 위해 몰려든 주민들이 피해자집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다.

(東亞日報)〈9월 1일자〉



〈9월 4일자〉= 『전남 나주 성폭행 피해 아동인 A양(7)이 이르면 2주 후에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A양을 치료하는 전남대병원은 3일 브리핑을 갖고 “현재로서는 재수술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르면 2주 후 퇴원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양은 8월 30일 발견 당시 나주종합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았다.

주치의인 주재균 교수(대장항문외과)는 “하지만 봉합된 회음부 부위는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만약 감염 증세가 보이면 재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 여부는 앞으로 1, 2주 지나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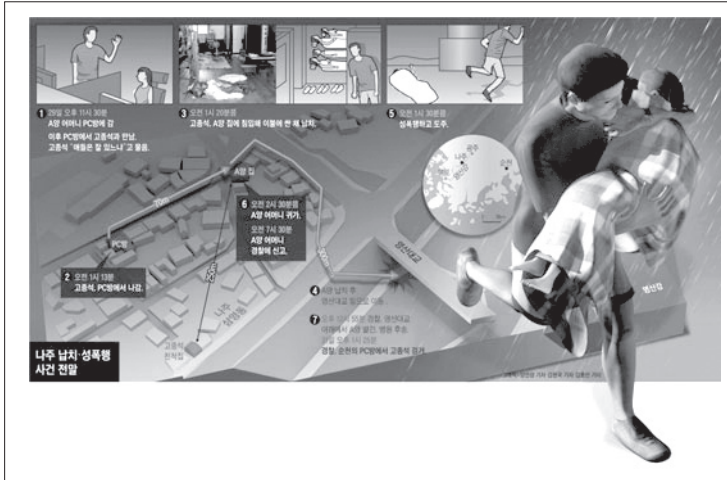
주 교수는 “A양은 1차 수술 후 2일까지 장내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물만 섭취했지만 3일 저녁부터는 미음이나 죽 섭취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항생제 치료를 비롯해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치료를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또 “현재 외부로 노출돼 있는 인공항문(장루)은 큰 문제가 없어 퇴원 뒤 일반적으로 3~6개월 사이에 복원수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양은 직장 외벽 근육과 주위가 찢겨 항문으로 배변을 보지 못해 인공항문을 부착하는 수술을 받았다.

주 교수는 이어 “현재 A양은 정신적 불안 등을 포함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을 보이고 있다”며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2차적인 정신적 피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 소아정신과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후략)』

(朝鮮日報)=



(매일경제)= 『성폭행범 고종석(23)에게 몹쓸 짓을 당한 A양(7·초교 1년)의 몸에는 그날의 악몽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전남대병원은 3일 ‘A양 진찰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직장 근육층과 주위 괄약근층 파열로 인공항문 시술과 회음부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공항문은 직장이 파열되지는 않았지만 기능을 제대로 못해 한 것이다. 3~6개월 정도 지난 뒤 인공항문 복원수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A양은 그동안 장내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물만 섭취했지만 이날부터 죽 등 부드러운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재수술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1차 수술을 받은 회음부 봉합 부위가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염 증세가 보이면 재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감염 여부는 수술 후 1~2일 정도 관찰하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양은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외견상으로는 얼굴 좌측 볼에 물린 자국이 있고 등쪽에는 굵은 자국이 남아 있다.

특히 A양은 지난달 31일 입원한 이후 현재까지 정신적 불안 등을 포함한

극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있다.(후략)』

(문화일보)= 『(전략) 전남대 병원에 따르면 A양은 회음부 봉합 부위에 감염이 생기지 않으면 2주 주 퇴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감염이 생기면 재수술이 불가피하다. 또 직장 손상으로 달고 있는 인공항문과 배변주머니는 3~6개월 후에 뗄 수 있다. 하지만 A양은 정신적 불안 등을 포함한 급성 스트레스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2차 정신적 피해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후략)』

(연합뉴스)= 『나주 성폭행 피해 초등생 A(7)양을 치료 중인 전남대병원은 A양에 대한 재수술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3일 오후 병원 6동 7층 회의실에서 ‘나주 성폭행 피해 환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재수술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양의 주치의인 주재균(대장항문외과) 교수는 브리핑에서 “그러나 회음부 봉합 부위가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만약 감염 증세가 보이면 재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감염 여부는 대체로 1차 수술 후 1~2주 정도 관찰 후에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앞으로 항생제 치료를 비롯해서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며 “1차 수술 후 어제까지는 장내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물만 섭취하고 있어 오늘 오전까지 영양 수액제를 동시에 투입하고 있다”고 상태를 설명했다.

또 “이날 저녁부터 유동식 섭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입원 기간은 재수술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2주를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 외부로 노출돼 있는 장루(인공항문) 부위는 큰 문제없이 퇴원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1차 수술 후 3~6개월 사이에 장루 복원수술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이어 “현재 A양은 정신적 불안 등을 포함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지만 경과에 따라 증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2차적인 정신적 피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 소아정신과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A양은 전남대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벌인 결과 직장 근육층 및 주위 괄약근층에 파열로 인한 봉합 소견이 있었지만 직장 점막을 포함한 직장파열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음부 열창 부위가 봉합돼 있었으며 복부에 에스(S)상 결상루 상태였는데, 이는 열창에 의한 복막 천공 때문에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상 결장(큰창자의 일부)에 인공항문을 만들어 복부 바깥으로 빼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후략)』

(한겨레)= 『전남 나주 집에서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7(7·초등 1년)양은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인공항문에 의존해 배변을 해야 하고, 정신적으로 급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 소아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는 의료진의 소견이 나왔다.

전남대병원은 3일 병원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7양을 정밀 검진한 결과와 향후 치료계획 등을 밝혔다. 7양은 성폭행을 당한 지난달 30일 나주의 병원에서 인공항문 시술 등 1차 수술을 받은 뒤 다음날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나흘째 치료를 받고 있다.

의료진은 “주요 부위 주변에 심한 열창(찢긴 상처)을 입어 나주의 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았다”며 “봉합 부위에 감염 증세가 보이지 않아 현재로서는 재수술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술한 부위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치의 주재균 교수(일반외과)는 “직장이 파열되지 않았지만,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아 인공항문을 시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면 7양은 2주일가량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의료진은 예상했다.

몸 밖에 노출돼 있는 인공항문은 통상 3~6개월 뒤 떼어내고, 원래 있던 장기를 복원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의료진은 밝혔다. 이때까지 7양은 배변 주머니를 차고 지내야 한다.(후략)』

(한국경제)= 『(전략) 3일 언론브리핑에서 송은규 전남대 병원장은 “나주병원에서 직장 근육층과 주위 괄약근층 파열로 인한 인공항문(장루) 시술을 받은 후 2차적인 정신적 피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 소아정신과 치료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원장은 브리핑에 앞서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충격이 매우 커 병원에서도 조심스럽게 치료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A양의 주치의 주재균 교수(대장항문외과)는 “A양이 지난달 31일 오후 4시30분께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된 뒤 수술경과에는 아직까지 큰 이상이 없으나 수술 후 장내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물과 함께 영양수액을 투입받고 있는 중”이라고 현재 상태를 설명했다. 병원 측은 이날 저녁부터 수액과 물 외에 죽을 제공했다.

재수술 여부와 관련해서 “2차 수술계획은 없으나 1차 수술을 받은 회음부 봉합 부위가 감염 가능성이 높아 추후 감염증세가 보이면 재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외부로 노출돼 있는 A양의 장루 복원수술이 3~6개월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그때까지 A양은 정상적인 배설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 교수는 “A양은 당시 외견상 안면부 좌측 볼에 물린 자국이 있고 등쪽으로 굵힌 자국이 남아 있었으며 목 부위는 초기에는 불그스레한 자국이 있었지만 현재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상태”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A양의 입원기간은 재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2주 정도로 예상했다.(후략)』

(한국일보)= 『“집이 바로 저긴데, 바로 저긴 줄은 아는데... . 아무리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해도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못 왔어요. 미안해요, 아빠.”

지난달 30일 오후 나주 초등학교 납치·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A(7)양은 아버지(41)의 품에 안기면서 이렇게 흐느꼈다. A양은 11시간 전 피의자 고종석(23)에게 이불째 끌려가 목을 졸린 채 무참히 짓밟히는 등 악몽 같은 밤을 보낸 터였다.

거의 ‘죽다 살아난’ A양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돼있었다. A양은 국부와 대

장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나주종합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고 그 이튿날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3일 현재 A양은 정신 불안 증세를 포함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신체적 손상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 후 4주 이내에 정신 불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전남대병원 측은 “A양이 점차 안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말을 걸어도 불안해하고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아우울증 등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로 이어지는 2차 정신적 피해가 우려돼 소아정신과 치료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상하기조차 끔찍할 만큼 큰 상처를 입은 A양의 몸 전신엔 성폭행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회음부 봉합 수술을 받은 A양은 항문까지 큰 손상을 입으면서 배변기능을 하지 못해 배에 인공항문(장루·腸瘻)을 달고 생활하고 있다. 직장 근육층과 주위 괄약근층도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다행히 직장 점막을 포함한 직장 파열은 없었다. 복부CT 촬영 검사 결과, 1차 수술 부위들이 부어 있기는 했지만 복부 내 다른 부위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은 두 시간여에 걸친 1차 수술 후 장내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물과 영양 수액제로 버텨오다가 이날 오후부터 조금씩 죽이나 미음 등 부드러운 유동식을 먹기 시작했다.

병원 측은 A양에 대한 재수술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감염 가능성이 높은 회음부 봉합 부위에 감염 증세가 보이면 재수술을 할 계획이다.

A양의 주치의인 주재균(외과) 교수는 “회음부 봉합 부위 감염 여부는 1~2주 후 판단할 수 있다”며 “항생제 치료를 비롯해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양이 신체적으로 정상을 되찾는 데는 앞으로 최소 3~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병원 측은 내다봤다. 현재 배에 구멍을 내고 달아 놓은 인공항문이 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A양이 신체적으로 정상을 되찾는 데는 앞으로

최소 3~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병원 측은 내다봤다.

병원 관계자는 “A양이 회음부 봉합 부위에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재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2주 정도 후면 퇴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몸에 난 상처야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지만 평생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는 2차 정신 피해가 없도록 A양의 주변 사람들과 부모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와 사진들은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보도들이다.

경향신문은 피해 어린이의 일기장을 입수해 9월 1일자 1면에 글과 그림 등 그 내용을 기사와 사진으로 공개했는데 이는 피해자인 어린이의 사생활 보호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경향신문은 또 9월 3일자 4면에 범인의 범행 경로, 즉 피해 어린이의 집부터 범행현장인 영산대교 밑 경사지까지 4컷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중 사진에 나타난 피해 어린이의 집은 위치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하였다. 5면에도 피해 어린이 집 앞에서의 현장검증 사진을 크게 게재했다.

東亞日報는 9월 1일자 지면에 누구나 피해 어린이의 집과 부근의 위치를 잘 알 수 있도록 대형 항공사진을 게재했다. 東亞日報는 심지어 사진에 피해 어린이의 집을 특별히 붉은 원으로 표시하고 범인의 범행 경로와 부근의 지명까지 기록하고는 각 범행경로의 주요 지점간 거리까지 세밀하게 표시했다. 그리고는 사진 옆에 범인이 각 지점을 거쳐 가면서 범행한 상황을 시간대별로 설명해주는 별도의 표까지 첨부했다. 또 9월 4일자 기사에서는 피해 어린이의 치료상황을 전하면서 ‘봉합된 회음부 부위’ ‘현재 외부로 노출돼있는 인공항문(장루)’ ‘직장 외벽 근육과 주위가 찢겨 항문으로 배변을 보지 못해 인공항문을 부착하는 수술’ 식으로 기술하는 등 신체부위와 장기, 그리고 이들의 손상 정도·치료상태 등을 지나칠 정도로 세밀하게 특정하거나 묘사했다.

朝鮮日報는 9월 1일자 지면에 피해 어린이 집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명, 범

인의 범행경로를 시간대별로 말해주는 대형 지역그래픽을 게재해 누구라도 한 눈에 피해 어린이의 집과 주변 위치를 잘 알 수 있도록 했다.

매일경제, 문화일보, 연합뉴스, 한겨레, 한국경제, 한국일보도 피해 어린이의 치료상황을 전하면서 신체부위와 장기, 그리고 이들의 손상정도·치료상태 등을 지나칠 정도로 세밀하게 특정하거나 묘사했다.

이같은 보도와 편집은 피해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한차례 더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줄 수 있으며 피해 어린이가 자라면서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피해 어린이가 사는 지역을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그 이웃 주민들까지 물심 양면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사회적 공기로서 국민의 인권과 사회 정의를 위해 앞장서야 할 언론매체들이 심신 양면으로 큰 상처를 입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과잉보도로써 또 한차례 정신적 고통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인권 침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신문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트릴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5조 「개인의 명예존중과 사생활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금지), 제12조 「사생활 보호」 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215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문〉

일간스포츠 2012년 10월 20일자 23면 「패티김, JTBC ‘패티김쇼’로 46년 만에 친정복귀」, 10월 22일자 22면 「무자식 상팔자/드라마 왕국 JTBC·김수현 작가가 만든 ‘명품」, 10월 23일자 27면 「JTBC ‘무자식 상팔자’ 제작발표회 성황/ “3세대 가족 이야기에 빠져들 것”», 10월 24일자 23면 「JTBC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로 돌아온 이미숙·김성민」, 10월 25일자 27면 「JTBC 신화방

송' 주말 예능 강자 꿈꾼다», 10월 29일자 23면 「더 젊게, 더 재미있게 바뀐 JTBC 프로그램», 10월 30일자 23면 「'폭탄파마·복고 패션' 이미숙 너무 웃겨/속사포 대사 완벽구사 … 온라인 선공개 11만명 클릭/JTBC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 첫방송 합격점 받아», 10월 31일자 23면 「베일 벗은 JTBC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 11월 2일자 19면 「JTBC '연예특종' 시청률 1위 등극 비결», 11월 5일자 22면 「JTBC 월화 드라마/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사랑과 전쟁' 작가의 촌철살인 대사 … 공감 100%», 11월 12일자 23면 「'무자식 상팔자' 인기, '아내의 자격'보다 빠르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유〉

일간스포츠는 종편 방송 JTBC의 관계사로서 지난해 연말 JTBC가 개국한 이래 수시로 JTBC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지면에 대서특필해왔다. 특히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2일까지 23일 중 무려 11일 동안 JTBC 프로그램 관련 기사를 연예면 등 관련 지면에 톱기사나 사이드톱 기사로 올렸다. 일간스포츠의 JTBC 홍보성 기사는 새로 방영할 드라마를 중심으로 주로 쇼프로그램, 보도프로그램, 프로그램 개편방향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처럼 특정 방송사의 이익을 위해 해당 방송사 프로그램의 장점을 과대하게 부풀려 수시로 크게 다루는 기사들은 전형적인 홍보기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신문이 관계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다른 신문보다 어느 정도 돋보이게, 또는 자주 게재하는 것은 이해할만하나 일간스포츠의 이같은 보도행태는 언론매체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공정성과 객관성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같은 보도는 결국 독자들을 무시하고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3조 「언론의 독립」,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1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대구일보 발행인 이 태 열
2. 每日新聞 발행인 이 창 영

〈주문〉

대구일보 2013년 1월 9일자 6면 「“남편이 마약을 한 것 같아요.”」 제목의 기사, 每日新聞 1월 9일자 4면 「마약 폭탄 제조 척척/범죄 소굴 된 인터넷」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대구일보, 每日新聞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구일보)= 『“남편이 히로뽕을 한 것 같아요.”

지난 12월 말,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윤모(51)씨의 집에 출동한 경찰은 아내로부터 의외의 진술을 접했다. 남편이 마약을 하고 환각 상태에서 자신을 때렸다는 것이다. 반신반의하며 시행한 시약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의 추구를 받은 윤씨는 “제조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털어냈고, 경북 칠곡으로 달려간 경찰은 외딴 공장에서 마약을 제조하던 권모(38)씨를 체포했다. 1차 실험에 성공하고 판매만을 앞둔 상황, 이들이 만든 필로폰은 5만7천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권씨 등이 마약제조에 손을 댄 것은 지난해 2월. 이즈음 마약 중독 증세를 보였던 윤씨가 권씨에게 접근했다.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화학 공학을 전공한 권씨는 손재주가 남달랐다. 하지만 처음부터 권씨가 마약을 제조한 것은 아니었다. 초반 해외사이트에서 알아낸 제조법을 알려주는 데 그쳤던 그는 윤씨가 번번이 실패하자 결국 스스로 마약 제조에 나섰다. 외진 곳에 공장을 가지고 있던 권씨는 눈에 띄지 않게 마약을 제조할 수 있었다.

2월 초, 첫 시도는 실패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내 감기약에서 마약 성분을 뽑아내는 방법을 찾아냈다. 윤씨가 대구 시내 약국을 돌며 감기약 20통을 사

들었고, 권씨가 여기서 마약 성분을 추출했다. 추출한 성분에 기타 약품을 섞어가며 시험해 4개월 만에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3g을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 권씨는 윤씨로부터 50만원을 받고 이를 팔았다. 일종의 테스트로, 윤씨는 이 시험작에 ‘합격’ 판정을 내렸다. 자신감을 얻은 권씨는 마약 제조에 열을 올렸다. 제조량을 늘리기 위해 방법도 바꿨다. 이번에는 지난 2010년 7월께 경북 왜관의 한 공장에서 사들인 화공약품을 이용하기로 했다. 권씨는 약품들을 이용해 먼저 중간물질인 에페드린 2.5kg을 추출했다. 에페드린을 가공하면 필로폰 1.7kg이 만들어진다. 필로폰 1회 투약분(0.03g)이 10~15만원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시가 57억여원에 달하는 통 큰 실험이었다. 그러나 이 실험은 가정폭력에 시달린 한 아내의 신고로 엉뚱한 곳에서 덜미를 잡혔다. 범주가 범죄를 막은 셈이다.

지난 2일 권씨의 공장을 덮친 대구 북부경찰서는 염산 등 필로폰의 원료 12종과 제조 기자재 26종을 압수하고, 권씨 등 2명을 마약 제조·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했다.』

(每日新聞)= 『8일 기자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필로폰 제조 방법’을 검색해 본 결과 감기약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법 등 2만4천 건을 찾을 수 있었다.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이루는 주성분의 이름) 제조법’이라고 검색해 본 결과 영어로 된 사이트만 250만 건 이상 나왔다. 이 중 한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제조법에 따르면 재료들은 감기약과 질소비료, 건전지 등 실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구글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필로폰을 제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마약 제조, 사제폭발물 제조법 등 유해 정보가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다.

‘마약 제조법’ ‘사제폭탄 제조법’ 등 게시글이 국내 및 외국 포털사이트에 버젓이 나돌지만 인터넷에 올라오는 유해 정보를 100%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제조 방법을 알아낸 뒤 필로폰을 제조하고 판매하려고 한 혐의로 G(38) 씨를 구속했다. G씨는 필로폰 대량 제조를 시도하기 전에 감기약 성분을 이용해 필로폰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G씨가 해외 사이트 검색을 통해 감기약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 방법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마약뿐 아니라 사제폭탄 제조법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인터넷 한 블로그 운영자는 자신이 어떻게 사제폭발물 제조 방법을 검색했는지 적어 놓기도 했다. 기사가 직접 그 방법을 따라해 봤더니 실제로 사제폭발물 제조 방법을 적어놓은 문서 파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질산칼륨, 염소산칼륨, 질산암모늄, 황산 등으로 사제 폭탄을 만드는 방법이 버젓이 게시돼 있었다.

현행 형법상 폭발물 제조 관련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폭발물 사용 선동죄’로 처벌되지만 사제 폭탄 제조법을 담은 글은 인터넷에 끊임없이 올라온다.

그나마 국내 포털사이트는 최소한의 제재가 가능하지만 경찰의 단속 권한이 없는 구글, 야후, 유튜브 등 외국 인터넷 사이트는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이다. 물론 이들 사이트들도 ‘세이프서치’와 같은 유해정보 검색 차단 기능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이용자가 차단 정도를 조절하거나 심지어는 차단 기능을 끄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어 유명무실하다.

한 네티즌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마약 제조법을 살펴보니 화공학 전공자라면 기본적인 도구만 있으면 손쉽게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마약 제조법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마약 제조 및 폭발물 제조 방법은 실정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폭발로 인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일보와 每日新聞은 위 기사를 통해 필로폰을 제조하고 판매,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2명의 범죄행각을 다루면서 마약을 제조하는 과정 등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대구일보의 기사는 범인들은 해외사이트에서 제조법을 알아냈고, 감기약에

서 마약 성분을 찾아냈다면 『추출한 성분에 기타 약품을 섞어가며 시험해 4개월 만에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3g을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 『약품들을 이용해 먼저 중간물질인 에페드린 2.5kg을 추출했다. 에페드린을 가공하면 필로폰 1.7kg이 만들어진다』고 제조과정을 소개했다.

每日新聞은 이 사건을 계기로 ‘범죄 소굴이 된 인터넷’의 실태에 대해 기자가 검색을 통해 체험하는 형태로 기사를 게재하면서 ‘마약 제조법’, 더 나아가 ‘사제폭탄 제조법’을 다뤘다. 기사는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이루는 주성분의 이름) 제조법’이라고 검색해 본 결과 영어로 된 사이트만 250만 건 이상 나왔다. 이 중 한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제조법에 따르면 재료들은 감기약과 질소비료, 건전지 등 실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구글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필로폰을 제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며 인터넷에서 마약 제조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 『사제폭발물 제조 방법을 적어놓은 문서 파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질산칼륨, 염소산칼륨, 질산암모늄, 황산 등으로 사제 폭탄을 만드는 방법이 버젓이 게시돼 있었다』며 ‘폭탄 제조법’도 소개하고 있다.

이들 신문의 기사는 인터넷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정보들을 전했다고는 하나 아직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던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대중에게 불필요하게 유해한 정보를 전하는 결과를 초래해 새로운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는 지나치게 흥미를 좇는 선정적인 보도이며, 이러한 보도행태는 신문의 사회적 공기로써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때문에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25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문〉

매일경제 2013년 1월 10일자 별지섹션 ‘스타투데이 &’ C1면 「첫회부터 화제집중 MBN 버라이어티쇼 ‘엄지의 제왕’〈금요일 오후 11시〉/아들만 다섯, 목소리로 건강 판별…’특별한 사람들’ 제목의 기사, C2면 「MBN/님과 님 사이 〈수요일 오후 11시〉 부탁 거절못하는 남편, 빚만 3억 … 이혼해달라는 아내」 제목의 기사 외 1건, C4면 「MBN/생활의 재발견 〈수요일 오후 9시〉 수제어묵·찜질방 위생 … 충격적인 진실」 제목의 기사 외 4건, C5면 「MBN/황금알〈월요일 오후 11시〉」 제목의 기사 외 1건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유〉

매일경제는 8면짜리 별지 섹션에 관계사인 종합편성채널 MBN의 프로그램과 출연 인물을 대대적으로 다루었다. 2개면은 전면광고이며 나머지 6개면 중 4개면 전체를 MBN 프로그램과 출연 인물을 미화한 장점 일변도의 홍보성 기사로 채웠다. 별지 섹션 자체가 MBN 프로그램 홍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 연말에 종합편성 채널들이 출범한 후, 기존 지상파 방송과 종편이 각기 다른 지상파 방송·종편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문사들은 자사 신문 지면을 관계사 종편 프로그램 홍보에 활용해왔다. 매일경제는 위 별지 섹션 도 그러한 홍보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같은 제작태도는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를 하기보다 독자들에게 편향적이고 왜곡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문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3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주 문〉

매일경제 2013년 2월 2일자 1면 「자본시장 독버섯 고발한다 ①/작전세력·한국경제TV 前 PD 전격구속/주가조작 놀이터 증권방송」· 7면 「자본시장 독버섯 고발한다 ①/특정株 콕 찍어 미리 사들인뒤/한경TV 출연 “이 종목 유망”/믿고 따라한 시청자만 피눈물」, 「방송심의위 “조사끝나면 제재 고려”」, 「“한국경제TV만 믿고 투자했는데 …”/손해본 개미들 소송 준비」 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2월 5일자 1면 「‘폭주언론’ 매일경제를 고발한다 ①/광고·협찬 안하면/무차별 ‘보복기사’」· 6면 「‘폭주언론’ 매일경제를 고발한다/매일경제, 종편 출자 꺼린 기업들 돌아가며 ‘융단폭격’/①도 넘은 ‘머니 저널리즘’」, 「MBN에 출자한 저축은행 줄줄이 파산」, 「주가조작 원조 MBN<2002년 보도채널>」 제목의 기사에 대해 각각 ‘경고’ 한다.

〈이 유〉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각각 지면을 파격적으로 할애한 위 적시 기사를 통해 서로 상대 신문의 치부와 약점을 파헤치고 비방했다.

매일경제는 2월2일자 1면에 대형 머릿기사, 7면 전면에 「자본시장 독버섯 고발한다」 제목의 시리즈물 1회분을 싣고 한국경제TV의 前 PD가 증권전문가로부터 출연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매일경제는 작전세력과 한국경제TV는 공생관계라면서 한국경제TV의 PD는 ‘갑 중의 갑’이라고 비난하는 분석·해설 기사를 실었다.

한국경제는 매일경제를 ‘폭주언론’으로 규정하면서 2월 5일자 1면에 대형 머릿기사, 6면 전면에 「‘폭주언론’ 매일경제를 고발한다」 시리즈물 1회분을 게재하고 매일경제가 기업과 금융권에 대해 ‘매일경제와 계열사 종합편성채널인 MBN에 광고와 협찬·자본 참여를 하라’며 압박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무차

별 보복기사를 쓴다고 폭로했다.

매일경제는 한국경제를 ‘자본시장 독버섯’, 그 계열사인 한국경제TV를 ‘주
가조작놀이터’라는 등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난하고, 한국경제도 매일경제에
대해 ‘폭주언론’ ‘주가조작원조 MBN’ 등의 험한 말로 지칭하는 등 분노의 감
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들을 노골적으로 사용하면서 상대의 약점을 상세
하게 들추어내고 비난과 공격을 퍼부었다.

누가 보아도 ‘전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양사의 대결은 외견상으로는 한국
경제가 1월 30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 소식에 곁들여 역대 총
리후보자 낙마 사례를 거론하면서 시작됐다. 한국경제는 이 기사에서 김대중
정권시절에 매일경제의 장대환 회장이 탈세와 위장전입 등의 의혹으로 총리
후보에서 낙마했다는 사실도 언급한 데 이어 이틀 후인 2월 1일 「인사청문회
의 공포」라는 면 제목 아래 3건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장상·장대환 위장전입
에 ‘발목’/과거 ‘낙마’ 사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장 회장이 총리후보에서 낙마
한 사실을 다시 언급하고 사진까지 실었다.

한국경제의 두 번째 ‘공격’이 있었던 2월 1일 매일경제는 증권전문가 등으
로부터 수천만원의 받았다가 구속기소된 한국경제TV 전 PD사건을 보도했고
이어 이튿날인 2월 2일 ‘자본시장 독버섯 고발한다’는 제목의 대형 기획시리
즈물을 게재했다.

이에 한국경제는 2월 5일자에 ‘폭주언론 매일경제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기
획시리즈물을 게재하면서 맞섰다.

두 신문사는 상대를 헐뜯고 비난·공격하는 기획 시리즈물 1회분을 게재하
고는 독자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후속 기사를 내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의 접
전을 피했다.

두 신문이 이 과정에서 게재한 기사들은 독자가 알아야 할 사실을 객관적이
고 공정하게 다룬 것들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사주 또는 경영주가 자신
의 이익·명예가 침해당했다는 생각에 집착한 나머지 상대에 보복하기 위해 자
사 기사들을 동원해 지면을 악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공의 자산인 언론매체를 사주 또는 경영주가 적대 매체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 상대의 약점과 치부를 파헤치고 이를 건강부회식으로 부풀리고 저급한 표현을 사용해 비방과 공격에 나서도록 한 것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해당사 사주들이 언론매체와 소속 기자들을 사유화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리고 독자를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었다면 결코 벌일 수 없는 추태다. 그리고 이 추태는 해당 언론사들 뿐만 아니라 신문 전체의 위상, 언론의 명예와 신뢰·권위를 실추시키는 씻기 어려운 큰 상처를 안겼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3조 「언론의 독립」, 제4조 「보도와 평론」,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②(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4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연합뉴스 발행인 박 정 찬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3.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문〉

연합뉴스 2013년 2월 2일 13 : 23 송고 「국가 흥사 예고?’ 익산 석불좌상 땀 흘려」 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2월 4일자 A26면 「익산 석불좌상 또 땀 흘려 … 국가 흥사 예고?’ 제목의 기사, 서울신문 2월 4일자 9면 「6·25전쟁, IMF 외환위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 /또 땀 흘린 ‘석불사 석불’ … 국가 흥사 예고?/1일 가슴·다리 흠뻑 젖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연합뉴스, 매일경제,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합뉴스)= 『국가의 흉사가 있을 때면 땀을 흘리는 전북 익산 석불사의 석불좌상(石佛坐像)이 또 땀을 흘려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국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등의 의견이 분분하다.

2일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석불사에 따르면 석불사 내 석불좌상이 1일 오후 5시께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을 사찰 관계자가 발견했다.

석불은 머리 부분을 제외한 가슴과 다리 부분이 흠뻑 젖었으며 흘린 땀의 양은 확인되지 않았다.

땀 흘리는 장면은 사찰 관계자와 주민 등 10여명이 목격했다.

사찰 관계자는 “기후적인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석불사 석불좌상이 국가적인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땀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이번 땀도 최근의 국가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

이 석불좌상은 1950년 한국전쟁과 1997년 IMF 외환위기,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도 구슬 같은 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리는 현상을 보여 일명 ‘땀흘리는 석불’로 불린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기후 변화에 따른 현상이나 좌상 자체의 결로현상으로 보는 등 과학적인 해명을 시도하고 있으나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다.

보물 45호인 이 석불좌상은 백제시대인 600년께 제작됐다.

머리 부분을 제외한 몸체 높이는 156cm이며, 광배 높이는 326cm인 화강암 불상으로 머리는 최근에 만들어 붙였다.』

(매일경제)= 『우리나라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땀을 흘렸던 전북 익산 석불사의 석불좌상이 또 땀을 흘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석불사에 따르면 석불사 내 석불좌상이 지난 1

일 오후 5시께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을 사찰 관계자가 발견했다.

석불은 머리 부분을 제외한 가슴과 다리 부분이 흠뻑 젖었으며 흘린 땀의 양은 확인되지 않았다. 땀 흘리는 장면은 사찰 관계자와 주민 등 10여명이 목격했다.

사찰 관계자는 “기후적인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석불좌상이 국가적인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땀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이번엔 또 땀을 흘리면서 우리나라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석불좌상은 1950년 한국전쟁과 1997년 IMF 외환위기,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도 구슬 같은 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리는 현상을 보여 일명 ‘땀흘리는 석불’로 불린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기후 변화에 따른 현상이나 좌상 자체의 결로현상으로 보는 등 과학적인 해명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다.

보물 45호인 이 석불좌상은 백제시대인 600년께 제작됐다. 머리 부분을 제외한 몸체 높이는 156cm이며, 광배 높이는 326cm인 화강암 불상으로 머리는 최근에 만들어 다시 붙였다.』

(서울신문)= 『국가에 큰일이 생길 때면 땀을 흘리는 것으로 알려진 전북 익산 석불사의 ‘석불좌상’(石佛坐像·보물 45호)이 최근 땀을 흘린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3일 석불사에 따르면 석불사 내 석불좌상이 지난 1일 오후 5시쯤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을 사찰 관계자가 발견했다. 석불은 머리 부분을 제외한 가슴과 다리 부분이 흠뻑 젖었으며 흘린 땀의 양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장면은 사찰 관계자와 주민 등 10여명이 목격했다.

석불사 관계자는 “기후적인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석불사 석불좌상이 국가적인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땀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이번 땀도 최근 국가적인 문제와 연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제시대인 600년쯤에 제작된 이 석불좌상은 1950년 6·25전쟁과 1997년

IMF 외환 위기,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도 구슬 같은 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리는 현상을 보여 일명 ‘땀 흘리는 석불’로 불린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기후 변화에 따른 현상이나 좌상 자체의 결로 현상으로 보는 등 과학적인 해명을 시도하고 있으나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다.

석불좌상은 머리 부분을 제외한 몸체 높이 156cm에 광배 높이가 326cm인 화강암 불상으로, 머리는 최근에 만들어 붙였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는 지난 2월 2일 13:23에 송고한 위 기사에서 『국가의 흥사가 있을 때면 땀을 흘리는 전북 익산 석불사의 석불좌상이 또 땀을 흘려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면서 국가 흥사의 예고일 수도 있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매일경제와 서울신문은 연합뉴스 기사 내용 중 일부 표현과 문장 순서를 바꿨을 뿐 사실상 기사를 전재하고서도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아 이틀 후인 2월 4일자 신문에 위 적시 기사들로 내보냈다.

기사에 따르면 2월 1일 오후 5시쯤 석불의 가슴과 다리 부분이 물방울에 젖어 있는 것을 사찰 관계자와 주민 등 10여명이 목격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물방울에 젖은 모양을 『땀을 흘리고 있다』고 서술했다.

사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후적인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석불사 석불좌상이 국가적인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땀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이번 땀도 최근의 국가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고 위 기사들은 전했다.

기사들은 특히 『이 석불좌상은 1950년 한국전쟁과 1997년 IMF 외환위기,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도 구슬 같은 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리는 현상을 보여 일명 ‘땀 흘리는 석불’로 불린다.』고 마치 확인된 사실인 양 단정적으로 기술했다.

그러나 해당 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석불좌상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눈물’을 흘렸고, 이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은 사찰 관계자의 주장일

뿐 기자들이 직접 기록을 본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4년도 안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때 ‘눈물’을 흘렸다면 이에 대한 보도와 더불어 기록도 남았을 법하지만, 이를 보도했다는 기자도, 기록도 찾아볼 수 없다. 인터넷으로 익산 석불사의 석불좌상을 조회해 보면 ‘땀’이나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비과학적 사안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사실인 양 과장한 선정 보도라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기사들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②(미확인 보도 명시 원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매일경제와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추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5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3.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문〉

매일경제 2013년 2월 7일자 별지섹션 ‘스타투데이 &’ C1면 「설특집 프로그램 MBN 새해도 채널고정/‘미안마 제빵왕’된 한국인 … 쥐고기 먹는 110세 할머니」 제목의 기사, C2면 「MBN/매일아침 8시… 볼수록 빠져드는 ‘뉴스수다」 제목의 기사 외 2건, C4면 「MBN/이 밥상은 보약이냐? 독약이냐?」 제목의 기사 외 3건, C5면 「MBN/황금알/北 김일성 ‘별의별 장수요법’에 입이 짝」 제목의 기사 외 2건, 중앙일보 2월 8일자 별지섹션 ‘week &’ S1면 「김현주표 요부연기 감칠맛 끝~내줘요」 제목의 기사, S1면 「착하고 밝은 이미지 확 깨는 배역이라 더 욕

심」 제목의 기사, S3면 「새프로 풍년 JTBC, 채널고정하면 설 연휴 상팔자」 제목의 기사 외 1건, 東亞日報 2월 8일자 A18면 「채널A 시청률 1위 뒤엔 ‘속보해설’ 뉴스 투트랙 전략」 제목의 기사 외 1건·A19면 「착한식당 순례 붐 일으킨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목의 기사 외 2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매일경제는 설특집으로 제작한 8면짜리 주말 별지 섹션에 관계사인 종합편성채널 MBN의 프로그램과 출연 인물을 대대적으로 다루었다. 전체 8개 면 중 2개면은 전면광고이며 나머지 6개 면 중 4개 면 전체를 MBN 프로그램과 출연 인물을 미화한 장점 일변도의 홍보성 기사로 채웠다.

중앙일보는 설날을 앞두고 제작한 16면짜리 주말 별지 섹션에 관계사인 종합편성채널 JTBC의 프로그램과 출연 인물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전체 16개 면 중 커버스토리부터 전반 3개 면 전체에 JTBC의 프로그램과 출연 인물에 대해 미화 일변도의 홍보성 기사를 게재했다.

매일경제, 중앙일보가 이날 발행한 별지 섹션 자체가 관계사 프로그램 홍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東亞日報는 본지 2개 면 전체를 관계사인 채널 A의 프로그램과 출연 인물을 홍보하는 데에 할애했다.

2011년 연말에 종합편성 채널들이 출범한 후 기존지상파 방송과 종편은 각기 다른 지상파 방송·종편과 치열하게 시청률 경쟁을 해오면서 일부 신문사들은 자사 신문지면을 관계사 종편 프로그램 홍보에 활용하는 데에 몰두해왔다.

이같은 제작태도는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를 하기보다 독자들에게 편향적이고 왜곡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문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떨어트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